

# 혼돈속의 국제석유시장... 출구는 어느 곳에?



장기덕

한국석유공사 석유정보처장

**최** 근 국제석유시장은 유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대형 악재(?)들이 앞을 다투어 발생하고 있어 한치의 앞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혼돈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부시 대통령의 “악의 축” 발언에 따른 미국과 이라크간의 긴장 고조,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충돌에 따른 이라크 석유수출 중단 발표, 베네수엘라 차베스 대통령의 사임 및 복귀, 세계경기 회복에 따른 석유수요 증가 기대감, 그리고 국제 투기자본의 석유시장 진출등... 보이지 않는 손이 석유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머피의 법칙”이 국제석유시장에 나타나고 있는 것일까? 꼬리를 물고 터져나오는 사건들로 인하여 금년 2월말부터 유가는 급등추세로 반전, 작년 연말 대비 약6~7\$/Bbl이 상승됨으로써 또 다른 석유

파동이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러한 악재들은 마치 칠푼쿨마냥 서로 뒤엉켜서 유가가 상승하는데 일조를 하고 있으며, 언제까지 이러한 사태가 지속될 수 있을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지금 석유시장을 지배하고 있다. 국내에서 소비되는 석유의 전량을 수입하는 우리나라로서는 치솟는 유가가 불안하기만 하다. 아직까지는 석유파동등 극단적인 시장 악화 사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는 예측이 되지만, 최근의 상황등은 단기간내 진정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아 당분간은 유가의 강세 기조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혼돈속을 헤매고 있는 국제석유시장... 유가의 상승 랠리는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OPEC과 비OPEC은 밀월 관계?**

작년 9월 11일에 발생한 미국 무역센터 테러사태는 국제석유시장을 뒤흔든 대사건이었다. 사건 발생 직후, 석유공급에 심각한 차질이 올 지 모른다는 우려감으로 유가는 큰 폭으로 상승을 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경기침체 가속화에 따른 석유수요 감소 예상 등으로 오히려 폭락하였다. 이에 따라 산유국들은 유가 부양을 위하여 다양한 노력, OPEC의 생산쿼터 축소와 비OPEC과의 협조를 통한 감산정책들을 실시하였으나 금년 2월초까지 유가는 하향 안정세를 유지하여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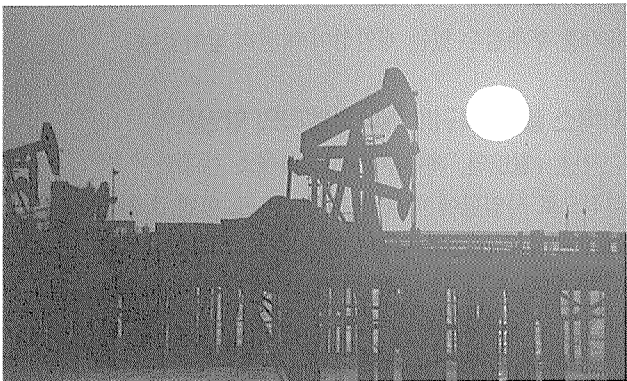
최근 급등하고 있는 유가는 위에서 거론한 여러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석유시장 지배를 위한 OPEC의 치밀한 노력의 결과로 보여지기도 한다. OPEC은 9.11 테러사태 이후 급락하던 유가를 방어하고, 석유시장의 안정을 도모키 위해 지난해 12월 개최된 총회에서 금년 6월말까지 150만B/D를 생산 감축기로 결정을 했다. 공급물량의 축소를 통하여 유가수준을 유지하고 시장 지배력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을 택한 것이다. 당초

회원국들의 이해 관계때문에 참여도가 낮을 것으로 예상이 되었지만 현재까지 80~100만B/D의 높은 감산 수준을 보여주는등 탄탄한 결속력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병행하여 비OPEC의 동참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만일 감산정책에 동조하지 않을 경우 가격전쟁도 불사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그 결과

예상외로 비OPEC 중 시장 영향력이 큰 5개국(러시아, 노르웨이, 멕시코, 오만, 앙골라)이 약 50만B/D를 2001년 1월부터 감산기로 결정을 함에 따라 OPEC은 석유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고, 급락하는 유가를 안정적인 수준으로 끌어올

**아직까지는 석유파동등 극단적인 시장 악화 사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는 예측이 되지만, 최근의 상황등은 단기간내 진정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아 당분간은 유가의 강세 기조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리려는 전략의 결실을 맺게 되었다. 특히 러시아의 경우 서구식 경영기법 및 기술을 도입하여 붕괴되었던 석유산업을 재건하고, 석유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려는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OPEC의 새로운 공급경쟁자로 대두되었다. OPEC 수뇌부들은 러시아를 방문, 우호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키 위하여 많은 노력을 경주하여 제119차 OPEC 정기총회(2002.3.15,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현재의 감산정책을 2/4분기까지 유지할 것을 재확인하고 지난해 12월 합의한 비OPEC 감산(50만B/D) 동참도 2/4분기까지 연장한다는 합의점을 다시 이끌어낼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약 130~150만B/D의 공급물량의 감소,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들의 경기회복세등과 연계하여 OPEC은 만족할 만한 수준까지 유가를 끌어 올린 것이다. OPEC과 비OPEC간의 밀월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협력관계가 계속 유지된다면 최근 국제석유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악재들과 연계되어 당분간은 유가가 강세로 유지될 것으로 보여진다.





사태가 악화될 경우 단기적으로 수급상황에 혼란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작년 6월에도 석유수출프로그램 갱신 과정에서 약 한달간 석유수출을 중단한 사례가 있으나 사우디등 OPEC의 대체 공급 약속으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사례를 볼 때 수급문제가 발생할 경우 사우디를 중심으로 한 OPEC 회원국들의 증산여력을 감안할 때 파장은 오래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악의 축! 이라크의 석유수출 금지 조치

미국의 부시 대통령은 국정연설 (2002.1.29)을 통하여 이라크를 “악의 축”으로 규정함으로써 국제석유시장에 큰 파장을 몰고 왔다. 동 발언으로 인해 미국의 이라크 공격설이 가시화되고, 확전론에 따른 불안감들은 곧바로 유가 상승을 부추기는 주원인으로 반영되었다. 최근 급등하고 있는 유가의 2~3\$/Bbl은 이라크 공격을 우려한 전쟁 프리미엄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의 이라크 공격 가능성외에 2002년 5월말로 종료되는 이라크 석유수출 프로그램 (Oil-for-food program) 갱신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다. 동 프로그램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미국, 영국등은 UN으로 하여금 “Smart sanctions” 도입과 무기 사찰단 파견문제를 거론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라크의 석유 밀수출을 막고,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물품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통해 이라크 경제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Smart sanctions제도와 무기사찰단 허용에 대해서 이라크는 수용하지 않겠다고 공언하고 있어 문제 해결을 둘러싸고 이라크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이라크의 석유 수출량은 약 200만b/d로서 전세계 석유 수출물량의 약 4~5%를 점유하고 있어, 이라크

이라크는 지난 4월8일,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충돌과 관련하여 이스라엘 철군을 조건부로서 30일간 석유수출을 중단한다고 발표를 했다. 금수조치 발표 후 국제유가는 상승추세를 보였으나, 사우디의 시장 안정 발언등에 영향을 받아 상승세가 급격히 둔화되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샤론수상은 힘을 바탕으로 한 외교정책을 추구하는 반면, 팔레스타인은 평화협상보다는 범아랍권 단결을 통한 무력항쟁을 추구하고 있는 입장을 보임으로서 문제해결은 쉽게 이루어지기 힘이 든 것도 사실이다.

이라크의 석유무기화 협조는 현재로서 큰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지만 향후 이-팔사태의 악화와 미국의 이라크 공격이 가시화가 된다면 그 파장은 바로 유가를 부추길수 있는 개연성이 여전히 남아있다.

### 차베스 실각..복귀!! 베네수엘라의 향방은?

지난 4월12일,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사임함에 따라 석유시장은 또 한번 소용돌이속에 빠져 들었다. 4월초부터 시작된 국영석유회사(PDVSA)의 파업에 따른 베네수엘라의 석유수출 차질은 국제석유시장에 영향을 미쳐 유가상승에 일조를 하여왔으나, 차베스 대통령의 사임과 동시에

유가는 큰 폭으로 급락하였다가 실각 2일만에 재집권함에 따라 다시 상승하는등 커다란 소동(?)이 발생했다.

그간 차베스는 OPEC내에서 적극적인 감산을 통한 유가 부양 주장, 산유량 조절을 통한 유가의 폭등 및 폭락사태를 방지키 위한 유가밴드제 도입 제안, OPEC 회원국 정상회담 제의, 회원국들의 쿼터 준수 촉구, 심지어 생산정책 협의의를 빌미로 이라크의 후세인 대통령을 만나기위해 이란에서 육로로 이라크를 방문하는등 감산 및 유가부양에 적극적이었다. 이러한

차베스가 사임하자 베네수엘라 석유생산 및 수출 정상화 기대감으로 유가가 하락했으나, 재집권함에 따라 과연 차베스가 과거의 정책기조를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경제위기를 타개키 위해 외국 자본의 유치 및 PDVSA 투자확대를 통한 생산능력 증대를 도모할 것인가 초미의 관심이며, 향후 석유정책 방향에 따라 국제석유시장은 다시 한번 영향을 받을 것이다.

향후 유가는 위에서 거론한 사태들의 영향을 지속

적으로 받을 것으로 보여짐에 따라 작년 4/4분기~금년 2월까지와 같은 20\$/B 이하 수준의 유가는 당분간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 과거와 같이 “석유 수요 증가 - 유가 상승 - 석유 증산”이라는 사이클에 연계되어 본격적인 유가 상승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으며, 그보다는 국제석유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있는 사건들이 어떠한 방향으로 해결될 것인지에 따라서 유가가 연동되어질 것으로 보여진다.

2/4분기에는 이라크 석유수출 중단, 중동사태, 베네수엘라의 석유정책등이 주요 변수가 될 것이며, 3/4분기 이

후에는 세계 경기회복에 따른 수요 증가, OPEC의 시장 안정을 위한 노력과 비OPEC과의 밀월관계 지속 여부등이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진다. 다만, 미국의 이라크 전면 공격에 따라 국제석유시장에 심각한 공급 차질이 발생할 경우 유가는 강세를 유지할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는 등 최근 국제석유시장은 혼돈의 연속이라고 표현할 수 밖에 없을 것 같다. ●

**2/4분기에는 이라크 석유수출 중단, 중동 사태, 베네수엘라의 석유정책등이 주요 변수가 될 것이며, 3/4분기 이후에는 세계 경기회복에 따른 수요 증가, OPEC의 시장 안정을 위한 노력과 비OPEC과의 밀월관계 지속 여부등이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진다.**

